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1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2월 26일 화요일 (음 1월 22일) 제223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군산-제주 왕복, 연중 하늘길 열려

도-군산시-이스타항공
1일 2편으로 증편 협약
동절기인 내달까지
대한항공 1편 포함 3편 운항
군산공항 활성화 탄력 예상



농업인 신년 업무보고회

25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농협중앙회 주최 2019 농업인 신년 업무보고회에 송하진 도지사와 김병원 농협중앙회회장이 기념식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관련기사 6면>

전북도와 군산시, 이스타항공은 최근 군산~제주간 운항을 당초 1일 1편에서 1일 2편으로 증편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종전 동절기에는 군산공항에 제방빙 시설이 없어 증편운항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번 협약체결로 동절기(11월~3월)에도 대한항공 1편, 이스타항공 2편 등 총 3편이 운항하게 됐다.

군산-제주간 항공기가 증편돼 매일 왕복 3회 운항체계로 바뀐다. 군산공항 항공수요 확대 필요성에 따른 문제 해결은 물론, 이용객들의 편의 증대, 군산공항 활성화에도 큰 탄력이 예상된다.

또한, 군산공항을 이용해 오전 10시 55분에 제주로 출발해 일을 마친 뒤 오후 4시 25분 비행기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종전 제주에서 최소 1박이 불가피했던 상황이 해결돼 전북과 제주간이 실질적으로 1일 교통 생활권이 확보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군산공항은 연간이용객이 2018년에는 하절기만 증편 운항으로 29만명, 탑승을 88%로 항공수요 확대 등이 한 계가 있었으며 동절기에도 항공편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번 증편운항을 계기로 항공편 부

족으로 제주도 방문이나 여행 시 광주공항 등 타 지역 공항을 이용하던 전북도민들의 군산공항을 이용하는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질 수 있게 됐다. 군산공항 오전 증편과 군산-제주간 매일 왕복 3회 운항으로 연간 탑승객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종전 연간 29만명 탑승객이 증편 연중 운항을 통해 연간 총 35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군산공항 증편 운항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새만금국제공항의 타당성 및 당위성 확보를 위한 시급 사안으로 향후 새만금국제공항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항공수요 증가 전망치에 따라 새만금국제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타당성 및 당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그간 꾸준히 노력해온 군산-제주간 오전 증편 연중 운항 문제가 해결되고, 운항횟수도 매일 왕복 3회로 늘어났게 됐다"며 "이용객들의 편의제공은 물론 탑승객 증가로 군산공항 활성화와 더불어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역사 바로세우기 앞장

도교육청, 일제 잔재 청산·역사교육 강화

전북중등음악교육연구회와 김성태·이홍렬 등이 창작 친일 교과 정비 작업 추진

학생·교사 대상 사제동행 국회사태학학교 등 전개
초·중등 역사 교과서 보조교재 활용 연수도

'조국에 바쳐', '높이 솟는 ~~학교', '목숨 다하도록 우리가 배운 교과'가 개발된다.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일제 잔재 청산 및 역사교육을 강화한다.

2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및 100년사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100년을 열어나가기 위한 다양한 교육활동과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도교육청은 전북중등음악교육연구회와 함께 일제 잔재가 남아 있는 교과 정비 작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도내 모든 초·중·고교의 교과를 수집·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 결과 초등 5개교, 중등 20개교 등 총 25개교에서 친일 작곡가 또는 작사가가 만든 교과를 부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친일인명사전에 수록된 김성태와 이홍렬이 각각 8곳으로 가장 많았고, 김동진 6곳, 현제명 2곳, 김기수 1곳 등이다.

또 친일 작곡가의 제자들이 작곡한 교과도 적지 않고, 1960년대 이전 개교한 학교들 중에는 일본 군가풍·엔카풍의 교과도 상당해 그 숫자는 훨씬 많아질 것이라 분석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전북중등음악연구회를 중심으로 친일 교과 개선 작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친일 작곡가의 교과가 있는 25개교 중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중등음악연구회에서 작곡·편곡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가사의 경우 '역군, 학도, 건아, 용맹' 등 현재의 교육방향이나 시대정

신에 동떨어진 내용들은 학교 구성원들과의 협의를 거쳐 바꿔 나갈다는 구상이다.

올바른 역사 인식을 위해 학생·교사들의 역사교육도 강화한다.

러시아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탐방하는 '사제동행 국회사태학학교',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역사 인문학 캠프' 등 학생 참여 중심의 역사교육이 전개된다.

또 '초등 역사수업 디자인 연수', '역사교육 지원을 위한 특강', '초·중등 역사 교과서 보조교재 활용 연수' 등 역사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이와 함께 초등 사회(역사) 보조교재 편찬과 중등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활용을 통해 학생들이 친근감 있고 흥미를 느끼는 역사교육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은 올바른 역사인식 교육을 꾸준히 진행해온 만큼 이벤트성 행사보다는 3·1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교육과정 안에서 녹여내고자 한다"면서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담은 역사교육을 통해 건전한 역사관과 국가관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올 향토인재 장학생 선발

전북도인재육성재단은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2019년도 향토인재 장학생을 선발한다.

인재육성재단은 25일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도내 출신 대학생 100명을 선발해 총 2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2019년도 향토인재 장학생 선발요강을 발표했다.

장학생 지원서 접수기간은 3월 6일부터 14일까지이며 접수방법은 전라북도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 인터넷접수와 인재육성재단 방문접수가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재육성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진성 기자

“마지막까지 축산차량 소독 철저” | 송하진 도지사, 김제 구제역·AI 방역현장 방문

송하진 도지사가 '정정 전북'을 지키는 구제역·AI 방역 최일선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송 지사는 25일 오후 2시 김제시 소재 거점소독소와 전주김제완주축협 가축시장을 전격 방문해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방역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전북도는 이날 전국 구제역 이동제

한 조치가 해제되어 위기단계가 '경계'에서 '주의'로 하향됨에도 불구하고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2월 말에서 3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위험시기 종료 시까지 24시간 비상태세 유지하며 취약분야 방역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해 10월부터 지금까지 휴일과 설 연휴도 반납하고 축산농가, 수의사와 방역관계자 모두가 구제역 AI 차단방역에 노고가 많았을 것"이라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한시라도 방심하면 언제든지 구제역·AI가 발생할 수 있다"며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축산차량 소독을 철저히 하고

축산농가 지도 홍보에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축산농가에서도 긴장을 늦추지 말고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해 구제역·AI 청정화 유지를 위한 차단방역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전했다.

/김진성 기자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TV
Dolm NAVER jjctv전북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79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레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